

# 친구와 신앙

멜리사 하트, 미국 유타 주

안녕하세요!  
전 이바나예요.

저는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살고요, 당당하게 친구나 가족들과 복음을 나눠요.

저는 천주교 여학교에 다녀요. 제 믿음 중에는 선생님들이나 친구들의 믿음과 다른 것들이 있지만 다들 저를 존중해 주고 저도 친구들과 선생님을 존중해요. 친구들과 선생님들은 제 종교를 궁금해해요. 그러면 저는 복음을 나누죠. 제 옆에 있는 친구는 루이시예요.

선생님 한 분이 우리가 천주교에서 믿는 것과 같은 것들을 믿는지 물으셨어요. 저는 선생님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씀드렸어요. 물론경과 성경, 교리와 성약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아빠는 교회 회원이 아니지만 가끔 활동 모임에 오신답니다. 저는 아빠를 "카톨몬"(카톨릭-물론)이라고 놀리곤 해요.



학교 친구 한 명을 제 침례식에 초대했는데 정말로 와 주었어요! 침례라는 경험을 그 친구와 나눌 수 있었다는 것이 정말 기뻐요.

## 이바나가 알려 주는,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생활하는 법

웃는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해 주거나 경전 구절을 나누어 준다.

매주 일요일에 교회 모임에 참석한다.

가정의 밤을 한다.

매일 경전을 읽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연차 대회에 참석하려고 솔트레이크시티를 방문해서 몬슨 회장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분의 말씀은 참 아름다웠고, 저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었어요.



콜롬비아 보고타 성전은 아름다워요. 언젠가 저도 그 안에 들어가서 복음을 더 배우고 싶어요. 제 친구 라우라가 저와 함께 갔어요.

